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순례자

발행인:이종운
편집인:나희주
편집주간:원필현
발행처:서울 장로교회
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517-7651~5
FAX: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4 학기

목회자 세미나 개강

마무리 준비

-앞으로 D-8일-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오는 9월 13일(월) 개강을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이종운 목사를 비롯한 10분의 강사진들이 발표되었고, 또한 사랑의 봉사자들은 자신이 맡은 일들을 물심양면으로 준비 중에 있다. 준비 위원들은 학기가 더 해갈수록 큰 사명감을 느끼며 이번에도 많은 목회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9월 9일

새가족 환영회 예정

새가족부(부장:김대호 집사)에
는 오는 9월 9일(금) 저녁 7시
30분에 2층 예배실에서 새가족 환
영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환영회

에는 지난 5월 세례주 이후 등록
한 새가족들 전원과 인도자, 교구
목사, 전도사 그리고 해당 지역장
과 다락방장들이 참석하게 된다.

초등부

추계대심방 및 전도운동

초등부(부장:박철훈 장로)는
8월 30일 부터 10월 9일까지 41
일동안 93학년도 총결산을 위한
추계대심방과 전도운동을 펼친다.

홍과 질적 성장으로 뜨겁게 변화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온 교사가
매진하고 있다.

초등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리스도의 복음 확장을 위하여 오
직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금년
도 목표인 200명 출석의 양적 부

특히 초등부에서는 교사들이
어린이의 가정을 심방할 때 부모
님들의 적극적인 수용을 바라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하기수련회 특강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도전(Ⅲ)

이종운 목사

(Ⅱ에서 계속)

오늘도 내가 희생하고 고통을 당하므로 다른 사람이 평안과 영광을 얻게 되고 오늘도 내가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므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며 오늘도 내가 믿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 없는 선교는 위선이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무엇을 희생했나? 얼마나 내가 고난을 감수했나? 죽는 자리에서 나아갔는가? 이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문해 보자.

3.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이 선교의 목적을 설명한다. 즉 선교는 새 생명을 낳는 것이다.

선교명령은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에 근거된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후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선교를 가능케 한 것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또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선교는 있을 수 없다. 부활 신앙을 갖는 이마다 땅끝까지 전하라는 대 명령을 순종케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을 살리신 부활의 권능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모델이므로 예수 부활은 우리 선교의 목적이 된다.

4.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 사건이 선교의 열매(결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동기가 선교를 하게 한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후 승천케 하심으로 그 이름을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였으며 모든 혀가 그를 주라 고백케 하였다. 승천하신 예수님께 세속주의자도 맑스주의자도 모슬렘교도도 힌두와 유대인도, 중국인과 한국인도 모든 인간이 경배케 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경배케 하는 것이 이 세상문화와 21세기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전이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가 만일 나로 인해 치욕을 받으셔야 한다면 내가 선 자리는 바로 지옥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5. 선교의 힘은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선교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이 오신 오순절 사건이 설교를 하게 한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민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 받은 자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은 자가 교회를 부흥케도 하고 성도를 거둬나케도 하며 개혁도 갱신도 가능한 것이다. 꺼져가는 불이 불이고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랑, 기쁨, 화평과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한다. 로잔 언약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 증인이시고 그의 증거가 없이는 우리의 증거는 무익하다”는 것이다.

6.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선교의 긴급성을 고조시킨다.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기대가 필요했듯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탄생, 이천 년을 목전에 두고 그의 재림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혹 낮에 혹 밤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서 개인적 종말의 때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긴급성이 요청된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성육신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하고 부활의 권능을 갖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의 힘으로 재림 전에 선교해야 한다. 21세기를 향한 우리들의 최대 도전은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이다. 따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3면에 계속)

창세기강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 하시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 4~7)



이종운 목사

흙과 영광

창 2: 4이하의 말씀은 창세기 1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재창조냐 아니냐 창조의 연장이나 하는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귀절입니다. 오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 지라”(7절)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1. 흙으로 된 육신

사람들은 가장 잘 알아야 할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헬라사람들은 인간은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흙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된 존재지만 천하게 피조된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주 천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흙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해서 인간을 천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대상으로 아주 귀하고 높게 인간을 평가했습니다. 성경에서 흙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악한 것은 아니지만 소중한 것도 아닌 본래 무가치한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창18: 27, 삼상2: 8, 시113: 7)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말 속에서 배워야 할 진리는 인간은 가치없는 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흙은 좌절이나 실패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창3: 14에 아담이 범죄하고 사탄의 유혹에 의해 넘어졌을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흙을 파고 살게 하시고 뱀은 흙을 먹고 살라고 저주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사탄은 모든 천사의 대표적인 자리에서 힘을 갖고 자랑했지만 이사야14: 13이하, 65: 25을 보면 사탄도 별것 아닌 것으로 떨어지는 모습

이 분명히 나타나있습니다. 또한 흙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3: 19~21, 창3: 19, 욥7: 21, 17: 16, 모두 다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가치하고 절망으로 빠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시103: 14)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시119: 25) 결국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이 생기는 라틴어로, Spiritus, 헬라어로 Pneuma, 히브리어로 ruach. 모두 ‘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게 되고 하나님앞에 복종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위치를 벗어나면서부터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의 처음이되면서 인간은 영으로된 존재이기에 지금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관계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진 존재

살전5: 23에 영과 혼과 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삼분설이라 하고 영과 육을 이분설이라 합니다. 성경은 삼분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히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으로, 끝났지 혼의 자리를 넣지 않았습다. 마6: 25, 10: 28에 인간을 육과 혼이 있다고 했고, 전12: 7, 고전5: 3~5에서는 영과 육으로

말했으니 육신과 혼이 있는 것인지 육신과 영이 있는지 구분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혼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인간의 인격적인 부분 즉 느끼고, 생각하고,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을 혼의 작용이라 하고 인간의 생명과 활동의 원리를 말할때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은 같은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살전5: 23에서 영, 혼, 육을 말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지 삼분법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창2: 7에 사람이 생령(Living Soul), 살아있는 영, 다시말해서 영과 육을 구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3. 영혼의 기원

(1) 영혼 선제설

하나님께서 영혼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영혼을 집어넣으신다는 설인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이미 택하셨다면 영혼이 선제되어 있는 것인가? 언제 영혼을 가진 것인가? 하는 질문은 신학에서도 해결이 안되지만 성경에 말 안한것은 알 수도 없고 이 선제설을 믿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2) 영혼 이전설

독일 루터파에서 주장하는 교리로서 부모로부터 육신을 물려받듯이 영혼도 부모에게서 육신이 나올때 하나님께서 부모로부터 전수시켜 주신다는 설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창2: 21~22에서 아담을 창조했다는 말은 있는데 하와는 육신은 만들었지만 영혼을 창조하신 말씀이 없고 또 창46: 26에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몸에서 나온자라고 한 말과 히7:

10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레위족속들이 있었다는 말은 자손들의 영혼이 이미 거기에 잉태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영혼 이전설을 믿게 될 경우 예수님의 무죄성을 주장할 근거가 없게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루터파의 영혼 이전설을 거부합니다.

3. 창조설

이 학설은 개혁교파, 칼빈을 비롯해서 개혁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성경을 이해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신 것인데, 그 시기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 복중에 벌써 하나님을 알고 뛰노는 애기도 있었지만 순수하게 창조된 인간은 아담의 죄를 전가 받고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갓 태어난 애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령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하심이라”(고전12: 14). 이 유익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12: 3)에 나옵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받은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중생하는 그 시간에 성령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살기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우린 죽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영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애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약수터마다 장사진이다.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시기 위한 노력인데 수질검사 결과 대부분 부적합하다는 보도이다. 더우기 장마가 지면서 지표에 깔려 있는 온갖 불순물이 땅속에 스며들어 지하수는 더 오염된다. 더구나 홍수라도 범람되면 물은 많으나 정작 마실 물은 귀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책, 신문, 방송을 통해 언제고 말씀을 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전화를 통해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 자판기”까지 등장했으니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물을 마시려면 땅속 깊숙이 있는 석간수를 찾아 물을 올리는 수고가 있어야 하듯 진리의 말씀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무오 무흠한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이 흔할수록 진리의 말씀은 귀한 것이고 귀할수록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홍수가 범람하건, 가뭄이 있건 변함없는 말씀의 샘터가 있어야 한다.

갈급한 나그네에게는 한 모금의 물이 한 줌의 보석보다 귀한 것일진데 진리의 샘터에 있는 우리는 정녕 감사가 넘쳐야 할 것이다.

이토록 말씀의 기근을 느끼는 이 때에 마침 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9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주간 열리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000년대를 향한 한국교회의 목회방향 설정의 이정표를 제시할 이번 목회자 세미나 마지막 학기에 뜻있는 목회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참 말씀의 기갈을 해소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1면에서 계속)

결론 : 책임있는 모범 교회를 지향하면서

1.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운동 확산
양적 팽창에 비해 신앙(과 신학)적 입지는 유아기적 단계임을 정정히 시인하자. 이같은 상황에서 급진적 해방 신학이나 민중신학 운동 또는 공명심에 의한 선교운동, 사회개혁 운동과 같은 일들이 소개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더 철저히 성경 읽기, 성경 연구하기, 성경적인 신앙운동이 우리교회에는 우선 되어야 한다(자기 갱신 운동이 없이 다른 일들을 시작해서는 안될 것이다.)
2. 기독교 가치관 정립과 문화운동 전개
삶에는 고급가치와 하급가치가 있다. 고급가치란 공유가 가능한 것. 한 사람이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이 손해를 안보는 것. 즉, 사랑, 지식, 평화, 지혜와 같은 것들이다.
하급가치란 배타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이다.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갖게 되는 것. 즉, 돈,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동물적 본능과 관계가 있다.(여기엔 가치의 부재 현상이 나타난다.)
최근 우리사회는 고급가치와 하급가치와 역류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기독교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국가관 등이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표현 문화로도 나타나 삶의 질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양식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교회의 내실화 운동
성숙한 교회로서 2천년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내적 성장이 양적 성장에 걸맞게 성장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적 소명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믿음의 역사(役事)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手苦)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忍耐)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자.

(끝)



적극적인 선을 행하자

우리 마리아6지회 회원들이 지난 8월 31일 세곡동에 있는 참빛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마침 11시 집회가 막 끝나고 점심식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그곳에 대해서는 전도회 회원 을 통하여 사전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가보니 생각 하던 것 이상이였다. 사실 가정에 장애인인 한 명만 있어도 가족모 두가 힘들어 하고 때로는 숨기고 싶어 하는데 무려 50명에 가까운 장애인들과 침식을 같이 하며 돌

아이를 간식과 마침 요한전도 회의 한 회원을 통하여 기증된 내 의등을 준비하여 갔으나 그것만 불쑥 내밀고 돌아오기가 민망스 러웠다. 그곳 전도사님의 얘기를 들으며 이들 앞에서는 우리의 눈 물조차도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는 참빛교 회 뿐아니라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참으로 무거운 발걸 음을 떼어 놓으며 악을 범하지 않 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선을 찾 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목사님 의 말씀이 생각났다.

새가족부 「전도총동원 환영의 날」 가져

새가족부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동안에 걸쳐 반별 전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잃은 양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결석하신분과 잘 만나오 시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님을 영접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한 결실로 이번에는 귀한 영혼 18명을 전도하게 되었다.

8월 29일(주일)에는 「전도 총동원 환영의 날」로 인도자, 등록자 모두 함께 시상과 즐거운 떡잔치를 가졌다. 개인전도 1등상에는 전춘 자 권사와 김초일 집사, 김쌍금, 강정순 성도로 3명을 전도했으며 반 별시상에서는 4명을 전도한 5반이 1등, 3명을 전도한 1, 9, 10반이 2 등의 영예를 차지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검여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을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굴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순례자칼럼

우리들의 자화상

노 문 환 장로

21세기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눈부신 과학문명의 발달과 첨단 과학기기로 인하여 놀라기도 하고 어리둥절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나라에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연일 발표되는 사정과 관련된 각종 톱뉴스들은 우리들을 더욱 아연케 하고 있다.

한때는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지도자연 하며 '나를 따르라'고 하던 유명인사들이 하루아침에 부도덕과 부정직의 대표자들이 되어 구속 수감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깊은 분노와 함께 일종의 허탈감을 느껴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너무 깊어, 너무 넓게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비위사실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사람에게조차도 "어디 그만한 죄지는 사람이 그사람 뿐이나"고 하면서 너그러운(?) 동정심을 표하는 모습에서, 분명한 비리인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만 특별히..."하면서 약썩빠르게(?) 처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나를 알 수 있다.

지금 이시간 1천만을 자랑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침묵하고만 있겠는가! 온갖 비리에 얽혀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들, 아니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경건의 능력은 잃은채 경건의 모습만을 갖춘 나약한, 위선적인 삶을 언제까지 계속하고 있겠는가! 이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이 사회의 불의와 부정, 부패를 바라보며 분노와 슬픔으로 인하여 울 수 있는 이 땅의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이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응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벌써 가을이 왔는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인생을 노래하는 성경을 읽자.

떨어진 밤을 줍듯 영혼을 줍자.

과야의
영소리

순례자에서는 성도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원고지 5매 정도에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특히 3면에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이라는 고정란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목회자 동정

이종윤 목사는 지난 9월 3일 서 집회, 그리고 미주 개혁신학교 (금) 10일간의 미국방문을 마치고 강의를 은혜롭게 마쳤다.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 초청의 말씀 ✧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한국교회의 바른 방향설정을 위해 성경적 교회론을 심도있게 다루면서 이혼분의 고전적 인물들을 동서양에서 택해 우리들 목회현장의 모델로 삼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의 국내 외 석학들과 경건한 교회지도자들의 특별히 연구된 논문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경향 각지에 흩어져 계신 목회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준높고 목회에 크게 도움이 될 효율적인 강의를 진행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전국의 동역자 여러분을 초대하며 기도후원을 바랍니다.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원장 이종윤(서울장로교회 목사)

✧ 세미나 안내 ✧

주제 :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

- 2000년대를 향한 한국교회 목회 모델 -

- 세미나기간: 1993년 9월 13일 - 11월 15일 (10주간)
- 일 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 장 소: 강남 YMCA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5-6)
전화: 547-0817
- 수강 대상: 전국의 목회자
- 수업년한: 2년으로 하되 일년에 2학기 (한학기는 10주) 총 40주
- 원서교부 및 접수일: 1993년 8월 16일 - 9월 13일
- 제출서류: 본원 소정양식의 원서, 증명사진 한장, 시무하는 교회의 후보 혹은 교역자 증명서
- 등록금: 한 학기 (10주)에 만원
- 교부 및 접수처: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서울장로교회사무국)
135-010 강남구 논현동 165-18 서울강남우체국 사서함 2123
전화: 517-7651/5 팩스: 512-1225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Mission &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Tel : 517-7651~5 Fax: 512-1225 (서울장로교회)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주의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예배당을 짓게 하소서.
2.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는 강사들을 위하여
3. 각 다락방의 모임이 부흥발전되도록

■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 교회약도

